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와 인간

광주문화중심도시, 다양성에서 찾자



박기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하드웨어', 건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단순한 랜드마크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전통문화와 역사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의 측면에서 보면, 같이 어울려 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적 컨텍스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지난해에 이어 광주일보와 광주 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 II-광주의 미학을 창조하자'에서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문화전통과 삶의 일체성'이란 주제 강연을 하였고, 같은 날 광주 MBC와 광주교육대가 주관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아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의 첫 모임이 성효상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 감독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통 문화의 단절을 경계하라는 김우창 교수의 의견에는 문화적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필자는 김우창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디어들이 만들어 놓은 과도한 이미지 범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 통신망의 발달에 의해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은 얼핏 보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소화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쓰나미와 대지진에 대한 TV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의 기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전자영상의 큰 위험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창조적 상상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광주를 21세기의 문화도시로 만들

자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지향적 혹은 기술적 테크놀로지의 환상에 젖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저 옛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유포되는 정보와 생각은 사람들의 인식을 다원화, 다양화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 가치를 유포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가치에 젖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굳어지고, 과거의 전통문화보다는 현재의 기계화된 문화가 더 진보적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 문화를 새롭게 보라는 김우창 교수의 충고는 성효상 총감독의 서양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비판, 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양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건축과 도시 환경은 '지배'와 '복종'에 바탕을 둔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동양적 건축, 특히 한국적 건축에서 땅에 바탕을 둔 '조화'와 '윤리'까지 읽어내는 성효상 총감독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성효상 총감독은 건축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사고의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하드웨어', 건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단순한 랜드마크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전통문화와 역사적 가치, 그리

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의 측면에서 보면, 같이 어울려 살고, 서로 소통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적 콘텐츠, 문화적 컨텍스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전통 문화를 옛 것으로 규정짓지 말고, 새롭게 재해석할 것, 그리고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성효상 총감독은 건축을 주제로 한국적인 것과 아시아적인 것의 특성으로 윤리와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에 열린 2011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국민 업무보고는 큰 의미가 있다.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9명의 고정 패널과 시민들은 정 장관과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에게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의견들이 조그만 샘플처럼 곳곳에서 흘러나와 조그만 도량을 이루고, 그 도량들이 모여 강물을 만들고, 그 강들이 모여 커다란 바다로 모여들듯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여 21세기의 광주 문화도시라는 커다란 모자이크를 훌륭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군산공항 국제선 검토 당장 철회해야

정부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도의시한 채 전북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승용차로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을 놔두고 또 다른 국제공항을 염두에 두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국제선이 1주일에 불과 6편 밖에 취항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연간 6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후자를 내던 광주공항 역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남겨주면서 10억 원 넘게 출혈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김포~광주, 김포~무안공항 노선의 여객 수요 감소율이 무려 64.2%나 돼 국내선 유지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방침대로 광주공항-무안공항-군산공항 '삼각벨트'가 형성

된다면 항공수요 분산으로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과 일부 충청권이 무안공항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군산공항에 넘겨 줄 경우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당장 무안공항을 제주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개항 4년 동안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2010년부터 5년 간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 대한 신규투자나 지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대한 대책도 뒷전이다.

정부는 당장 군산공항 국제선 검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를 부린다면 국가에서 정한 권역별 기능부여 정책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무안공항에 대한 신규투자 지원책 등을 새로 마련하고, 무안공항의 호남고속철 경유와 국제물류 허브항 유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잇단 대형 참사 부른 화물차 불법 주차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또다시 대형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23일 새벽 광주 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4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던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부인과 아들·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운전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도 광산구 도천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5t 크레인 차량을 1t 화물차가 추돌해 화물차 운전사가 숨졌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에는 북구 동림동 10년만에 고국에 돌아오던날 자신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와 그녀의 정부(情夫)인 아이기스토스의 손에 죽는다. 그리스군의 트로이 원정대 총 지휘관을 맡은 아가멤논이 자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친데 대한 보복살인이었다. 아버지의 살해자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던 엘렉트라라는 조국을 떠나 망명 중인 남동생 오레스테스와 힘을 합쳐 자신 어머니를, 동생은 아이기스토스를 각각 살해하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훗날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낳았다.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놓고 아버지를 적대하는 남자아이들의 본능이라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아가 부친에게 집념을 갖고 모친을 시기

하는 성향을 말한다. 4년만에 돌아온 신정아씨가 다시 사회를 흔들고 있다. 자신의 수인번호를 딴 자전 에세이집 '4001'을 통해 유명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해 출간 첫날에만 2만부가 팔려나갔고 랜한 서점에선 책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심리학자인 대구사범대학의 심성섭 교수가 신정아씨를 가르켜 '우리시대의 엘렉트라'라 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심 교수는 "그녀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종년 남성들에 대한 관심과 욕망, 남성들의 관계를 이기스토스를 각각 살해하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훗날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낳았다.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놓고 아버지를 적대하는 남자아이들의 본능이라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아가 부친에게 집념을 갖고 모친을 시기

하는 성향을 말한다. 4년만에 돌아온 신정아씨가 다시 사회를 흔들고 있다. 자신의 수인번호를 딴 자전 에세이집 '4001'을 통해 유명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해 출간 첫날에만 2만부가 팔려나갔고 랜한 서점에선 책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심리학자인 대구사범대학의 심성섭 교수가 신정아씨를 가르켜 '우리시대의 엘렉트라'라 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심 교수는 "그녀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종년 남성들에 대한 관심과 욕망, 남성들의 관계를 이기스토스를 각각 살해하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훗날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낳았다.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놓고 아버지를 적대하는 남자아이들의 본능이라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아가 부친에게 집념을 갖고 모친을 시기

無等鼓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엘렉트라는 비운의 여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주인공이었다. 엘렉트라의 아버지인 마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10년만에 고국에 돌아오던날 자신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와 그녀의 정부(情夫)인 아이기스토스의 손에 죽는다. 그리스군의 트로이 원정대 총 지휘관을 맡은 아가멤논이 자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친데 대한 보복살인이었다. 아버지의 살해자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던 엘렉트라라는 조국을 떠나 망명 중인 남동생 오레스테스와 힘을 합쳐 자신 어머니를, 동생은 아이기스토스를 각각 살해하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훗날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낳았다.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놓고 아버지를 적대하는 남자아이들의 본능이라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아가 부친에게 집념을 갖고 모친을 시기

엘렉트라 콤플렉스



를 성격으로 지각하는 것, 끝까지 학력 위주에 대해 부인하는 방어기제 등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볼때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신화의 '유아적 관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중고칼럼



서달원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을 줄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멀리서 움직이는 것이 개인지 다른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그때 날이 밝은 것입니다"라는 대답부터 "나뭇가지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날이 밝은 것"이라는 대답까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보이면 그때가 날이 밝은 것이다"(대지진 피해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부를 생각합니다.)

지난겨울은 그렇게도 추웠는데 요즘입니다. "에이구! 불을 꺼놓은 게 아니라, 네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니깐 그렇지!" 두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 색깔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육안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도 가려져 있으면 세상은 온통 어둠에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두가 다 밉게 보이지만,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

기고



박양근

좁나고 멋진 일자리,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관공은 일자리 한해에 3만개에서 최대 5만개 정도이다. 30대 대기업과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로 대학 2·3학년년부터 꾸준히 준비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한해에 신규졸업자와 취업재수생을 합쳐 적극적인 취업대기청년들을 50만 명으로 볼 때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45만여 명의 청년들은 어찌 될까. 그들 중 대다수가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88만원 세대'가 되거나, 부모에게 얹혀 사는 이른

교육방법인 '기업전담제', '소그룹지도제'를 통해 교수 한 사람이 10개 기업과 15명의 학생을 전담하는 현장실착형수업과 취업지도방식이 있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방식에 의해 현장기술의 변화를 잘 읽고 틈새 일자리를 가장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144개 2년제 대학 중 취업률 4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기술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머리를 쓰면서 손도 함께 쓰는 지식기술자(knowledge technologist and technici-

88만원 세대가 되지 않는 길

바 '깡겨부족' 또는 일하기도 싫고 학습하기도 싫은 '니트(NEET)'족이 되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있다.

필자가 있는 학교에서도 지난달에 장차 현장기술직(테크니션)으로 일할 신입생 4백 명을 모집하는데 9백 명 가까이 응시했고 그 중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중퇴한 고학력자가 5백 명에 가까웠다. 주로 인문사회계통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기술전문가의 길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입학동기는 폴리텍대학을 거쳐간 선배들의 추천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에 확신한 것이다.

이번 2월 졸업생 중 취업을 원했던 360명 전원이 취업했다. 군필 남학생의 초임 평균연봉은 2천4백만 원이고 LG 화학, 포스코 등 대기업에 3천만 원이 넘는 고임금으로 취업한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고졸 미필자가 초임연봉 1천8백만 원에 취업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현장기술직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폴리텍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연유는, 폴리텍대학의

an)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육받은 전문가로서 손재주와 실행력을 갖춘 현장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머리'가 뛰어나지 않다면 '일머리'를 개발해서 하루라도 빨리 직업인의 길로 진로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 청년들이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이나 이른바 '뿌리기술'과 관련된 직종을 선택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하면 평생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예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일원에서는 올해와 내년이 고용수요가 큰 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순천캠퍼스에서는 이곳에서 일할 수십 명 단위의 투입인력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기술을 배워 평생직업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수요가 생성되고 있는 기술과 고용이 확장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재출발해 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88만원세대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전문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한국폴리텍 V 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면

은 연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니다. 추운 날들을 보내면서 언제쯤 봄이 오려나 기다렸는데, 바깥 줄 모르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온 걸까요? 물어봐 보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땅속 깊은 곳에서 부지런히 자신이 품은 싹들을 띄울 준비를 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만 봄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익숙해진,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사로잡혀 그것의 진면목을 못 보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변화를 쓸모없다거나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더라도 그 변화의 실상을 바라볼 눈이 없다면, 그 변화는 나와는 무관한 다른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록도 한우분들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성당 정문에서 '하루 잘 보내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서 불련한 몸으로 생활합니다만 그래도 잔동자를 들고 가며 웃을 짓는 교수들의 환한 얼굴이 오늘은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밝게 기쁘게 하루하루 생활하시길...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재래시장서 유통 의약품 검증 안돼 구매 자제를

최근 재래시장에 가보면 정제불명의 각종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약사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상인들이 약효를 설명하며 만병통치약인양 판매하고 있다. 상인들은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소화제로는 이만한 게 없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 등의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뒷거래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다 보니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도 전무해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상인들의 말에 현혹돼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